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2. 16.(금) 10:00

5 분 자 유 발 언

(‘노동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

- ‘노동자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하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구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자로서 생활하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 나면
어머니 품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 농업환경은 전통적 재배작물인
벼·콩·배추 등과 특산물로는 부추와 호접란 등의
시설·하우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에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는 먼 태평양 나라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차 심해지는 기후변화는 우리 울산의 농업에도 시시각각 그 영향력을 보여 가고 있습니다.

울산배는 기후가 맞지 않아 소멸 위기이며, 북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돌미역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도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블루베리 등 새로운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 농가는 2017년 350호에서 2022년 473호로 늘어났습니다만, 농가인구는 총인구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북구 농업인의 약 64%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센서 기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노동력, 에너지 등을 적게 투입하고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거점으로 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 스마트팜 임대, 기자재 실증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867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 기술개발 사업 등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규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4년 스마트팜 규모는 405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021년 시설원예 규모는 6,485헥타르이며 4,743호의 축사에 스마트팜이 도입됐습니다.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켜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추진, 농업을 자동차산업에 이어 북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은 EU와 비교해 약 4년 뒤쳐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인·자동화 스마트팜이 개발되었지만
소규모 스마트팜의 약 85%는
원격 시설제어 중심의 기초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 문제로 특히 젊은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재배작물이 딸기,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등에
집중되어 경쟁이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울산시는 물론
우리 북구도 스마트팜 기술 도입·확산에 투자하고
퇴직자들과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저는 북구 스마트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구스마트팜포럼을 발족하는 등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라는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 차원에서도 스마트팜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시와 농협이 협력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가 신천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북구에 맞는 발전 방향을 찾아낼 때 스마트팜은 북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무엇보다 앞으로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